

NIE의 체계적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¹⁾

정 현 선(경인교육대학교 부교수)*

옥 현 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 요 약 》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상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부나 선택 과목의 하나로서 NIE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34시간(17주, 주당 2시간) 분량으로 중학교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신문 매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과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상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에 포함 가능한 내용 요소들을 추출한 다음, 중학생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수준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내용 요소들은 '단계'와 '범주'를 두 축으로 하여 조직되었으며 '단계'는 다시 '신문 이해하기', '신문 읽기',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하기', '주제가 있는 신문 만들기', '신문과 더불어 살기'로, '범주'는 '지식', '기능', '태도'로 구분되었다.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것을 촉구하고 필요한 후속 연구들도 제안하였다.

주제어: NIE, 신문, 매체,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

I.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상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부나 선택 과목의 하나로서

1) 이 연구는 2010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수행한 것임.

* 제1저자

**교신저자, hyounjin_ok@kice.re.kr

NIE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신문과 생활』(가제, 이하 생략)이라는 과목을 상정하고 이 과목의 중학교용 교육과정²⁾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NIE’란 ‘Newspaper In Education’의 머리글자를 따온 말로, 우리말로로는 ‘신문활용교육’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신문을 교재 또는 보조 교재로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한국신문협회, 2005), 즉 수업 또는 학습에 신문을 활용하여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교수법(한국신문협회, 2010)을 뜻한다. 국내에서 NIE는 1994년 한국신문편집인협회에서 당시 교육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학교교육에 NIE를 도입할 것을 건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수업, 특별 활동, 재량 활동, 특기·적성 교육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³⁾ 또 한편으로 학교교육에 NIE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주요 신문사에서는 신문 지면에 NIE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신문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교사 및 학부모 연수 실시, 다양한 NIE 교재 발간, 전국 NIE 대축제 개최, NIE 거점 학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 NIE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 15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학교 안팎의 관심과 관련 기관의 각종 지원 사업에 힘입어 NIE는 상당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NIE가 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과서, 그리고 그 교과서의 뼈대가 될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학습 시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⁴⁾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NIE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가보다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강사가 각자의 방식대로 NIE를 이해하고 스스로 개발한 수업 자료나 출판물에 의존하여 수업을 진행해 온 셈이다. 물론 이 점을 NIE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

2) 이 논문에서 ‘교육과정’이란 국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문서화한 실체를 가리키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교육 목적의 달성과 관련된 일체의 계획과 실천을 뜻하는 광의의 개념임을 밝혀둔다. 교육과정의 어원과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는 Lewy(1991, pp. 15~18)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과목’이란 용어도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한 과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새롭게 개설하는 강좌와 같이 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됨을 밝혀둔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12월에 고시되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중점’을 보면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p. 8),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16)라고 제시함으로써,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상의 교과목 이외의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 NIE의 체계화를 위해 『신문과 생활』(가제) 과목을 상정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3) 학교에서 NIE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는 정보의 비판적 읽기·쓰기를 담당하는 국어과와, 비판적 사고 및 시민 윤리를 담당하는 사회과로 나타나고 있다(정문성·구정화, 2005, p. 51).

4) 이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NIE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교사들 중에서 59.8%가 NIE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0% 정도가 NIE용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설규주·이두희·김명정, 2010).

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NIE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교사나 강사의 수준에 따라 교육의 질도 편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 등 부정적 측면도 간과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NIE를 논술과 같은 사교육과 연계하는 등 NIE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교육이 NIE의 이름으로 성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기태·권혁남·김양은, 2007). 따라서 NIE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전문적인 수준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또 그 사전 작업으로서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설령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교과서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NIE는 안정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NIE가 실행되는 방식은 개별 교사들의 관심에 따라 관련 교과에서 일부 활용되거나, 창의적 재량 활동 또는 특별 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처럼 교과에서 NIE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과 담당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특별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특별 시간에 시행되는 데다 평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의 일관성·체계성·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시간 문제는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교과교육 이외에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인데, ‘신문 활용’도 이러한 창의적 체험 활동 가운데 하나로 명시됨에 따라 NIE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⁵⁾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도입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성이나 상상력 등과 같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고, 학습자의 교육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간 배당 기준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는 총 수업 시간 1,680시간 중 272시간(16.2%), 3-4학년의 경우는 총 수업 시간 1,972시간 중 204시간(10.4%), 5-6학년은 총 2,176시간 중 204시간((9.4%), 중학교는 총 3,366시간 중 306시간(9.1%), 고등학교는 총 204단위 가운데 24단위(11.8%)이다. 이러한 시간 배당은 초등학교 3-4학년과 5-6학년의 경우 과학/실과 및 체육 과목과 동등한 것이고, 중학교의 경우 체육이나 예술(미술/음악) 과목(272시간)보다는 많고 수학 과목(374시간)보다는 적은 것이며,

5)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은 배당된 시간(단위)에 따라 학생의 요구, 학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존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통합한 것으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운영되는데, ‘신문 활용’은 이 가운데 ‘동아리 활동’ 영역의 ‘학술 활동’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신문 활용’은 창의적 체험 활동 가운데 ‘자율 활동’ 영역에 속하는 ‘창의적 특색 활동’으로도 실행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주요 교과인 국어, 수학, 영어의 개별 이수 단위(15단위)보다도 많은 것이라는 점에서 전체 교육과정 내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하위 영역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활동의 내용, 조직·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활동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인사,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자원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NIE와 관련성이 높은 국어나 사회 등의 교과와 연계하여 추가적 시간 확보가 가능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같은 기관의 미디어 강사 파견 사업 등을 학교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기존의 특별 활동이나 재량 활동과는 달리 평가를 강조하고 있고 그 결과는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점 역시, 그동안 평가 부재로 인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운영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특별 활동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새롭게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NIE가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하나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선택 과목의 하나로 개설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NIE의 정체성 확보 및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도 교육청 인정도서 수준의 공인된 교과서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⁶⁾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교과서를 개발함에 있어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해줄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기본 방향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6)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신문을 청소년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의 확대와 관련하여 전국에 NIE 거점 학교 100개를 지정해 1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NIE를 실시하는 내용과 NIE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보급을 2011년 대통령 새해 업무 보고에 포함하였다. 이 가운데 NIE 거점 학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NIE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역시 추진 과정에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새해 업무 보고, 신문 유료 부수도 내년 하반기 공개”, 매일경제신문 2010년 12월 17일자 기사 참조).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NIE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수탁 과제로 수행되었는데, 2010년에는 학교 교육의 중간 단계인 중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2011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구안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는 하지만, NIE는 국가 수준의 국민 공통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 활동 또는 선택 과목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점도 간과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기간에 매해 반드시 NIE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번 배울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배우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NIE의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학생들이 이해해야 할 지식의 깊이와 기능의 수준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위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NIE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시간 확보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NIE가 신문을 활용하여 다른 교과와 내용이나 주제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법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학습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들은 교수·학습의 방법으로 신문을 활용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신문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문 만들기과 같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론자들의 NIE에 대한 비판(김기태·권혁남·김양은, 2007), 즉 NIE의 활성화가 신문의 예비 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 신문의 현실 구성과 왜곡 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지적, 그리고 특정 신문사의 논조에 대한 비판이나 신문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교육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등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 논문에서 NIE의 체계화와 질적 발전을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 또는 학교의 판단에 따라 개설이 가능한 선택 과목의 명칭으로 「신문 활용」이 아니라 「신문과 생활」을 제안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II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논의한 다음에 「신문과 생활」 과목의 성격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신문과 생활」과목의 성격

NIE에 대한 정의와 목적은 교육계, 언론계, 학부모, 학생 등이 신문을 활용하는 범위와 적용 방법, 가치 기준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고, 이를 시행하는 나라에 따라서도 강조점에 차이가 나타난다(최상희, 2003). 일반적으로 교육계에서는 교사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설명식 수업을 벗어나 최근에 대두된 구성주의, 협동학습, 다중지능이론 등을 기초로 다양한 수업 방법을 교실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로 NIE를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계에서는 죽은 지식이 아니라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생생한 지식을 교실 수업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을 NIE의 최대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정문성·구정화, 2005). 이는 NIE가 최초로 학교에 도입된 배경에서도 잘 드러난다. NIE를 학교에 가장 먼저 도입한 신문사는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였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조 교재로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별명을 지닌 신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교와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뉴욕 타임즈는 1930년대부터 미국 뉴욕시의 교실에 신문을 정기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였다(한국신문협회, 2005).

하지만, 이미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학교 교육에서 NIE가 활성화된 데는 신문 매체

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교육계의 요구 외에도 영상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가 점차 외면 받는 현실에서 미래의 독자들을 미리 확보하려는 신문사의 전략이 작용한 부분이 있다(허병두, 1997). 국제 신문 발행인 연합 기구인 FIFJ에서 NIE를 “학교에 유용한 보조 교재와 교수 방법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미래의 신문 독자를 키우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공통적”(Vincens & Landsforbund, 1990, p. 1; 김훈순, 1994에서 재인용)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NIE를 “신문과 교육의 동반자적 신(新)산학협동(또는 NIE적 산학협동) 프로그램”(최상희, 2003, p. 2)으로 보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려는 필자들이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NIE 및 미디어 교육 전문가 6인을 초빙하여 개최한 전문가 협의회⁷⁾에서도 중요한 논쟁거리로 대두되었다. 한편에서는 NIE는 미디어 교육과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을 NIE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NIE가 신문에 실린 기사와 의견을 활용하는 만큼 신문에 실린 지식과 정보가 ‘구성된 현실’ 또는 ‘왜곡된 현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들은 이러한 견해차를, 접점을 찾기 힘든 대립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보적이고 순차적인 관점에서 보고 미디어 교육적 성격도 반영한 NIE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NIE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은 신문이 학교에서의 학습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을 위한 좋은 학습 자료라는 점에서, 신문을 통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신문을 학습에 구체적으로 활용해 보는 활동을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활용의 전(前) 단계로서 신문(텍스트)의 비중립적 속성을 인식하고 비판적·선택적 수용의 태도를 갖는 것 또한 21세기의 비판적·능동적 사회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아, 이를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정문성·구정화·박미영(2004)이 3천명의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연구의 결과도 NIE의 성격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관점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은 학교에서 NIE를 실천하는 데 있어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학생들에게 특정 신문이나 기자의 견해를 주입하게 될까봐 우려된다’거나, ‘신문마다 하나의 사건을 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서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사건을 보는 방법을 교육하기가 힘들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신문을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신문 매체와 신문 텍스트의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문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교육과정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

7) NIE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개최한 이 전문가 협의회에는 NIE와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주요 저서 또는 교재를 집필했거나 오랜 기간 전문강사로 활동한 전문가 6인(대학교수 2인, 신문사의 NIE 담당기자 1인, 국어과 교사 1인, 사회과 교사 1인, NIE 전문강사 1인)을 초청하여 서면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보적 시각에서 NIE의 본래 목적을 규정한 다양한 문헌들을(예를 들어, 최상희, 2003; 한국신문협회, 2005, 2010) 다시 검토해 본 결과, NIE의 목적과 효과에는 다양하고 현실적이며 비용이 적게 드는 보조적인 교육자료 제공, 학생들에게 글쓰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람직한 독자가 되도록 하는 것, 학습과정에서 학생의 창의성 신장, 학생 간 협동학습의 기회를 주고 협동심을 기르는 것,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르는 것 등과 같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측면뿐만 아니라, 신문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과 비평 능력의 개발, 신문에 대한 이해 촉진, 사실과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의 향상, 사회에 대한 안목과 관심 증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 민주 시민의식의 고취 등 미디어 교육적 목적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NIE의 애초 의도는 미디어 교육적 측면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측면, 즉 교수법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보다 미래 지향적인 NIE의 성격은 신문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신문에 실리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중심의 교육과, 신문을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다룬 학습 자료로서 여러 교과와 학습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도구적이고 범교과적인 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구체적인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신문을 단지 학습의 자료로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복합매체, 1인매체, 디지털 매체 등으로 정의되는 최근의 매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신문을 매개로 자신만의 내용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⁸⁾ 그리고 이론이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신문 매체를 경험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직접 신문을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자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상에서 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8)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등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있는 교과서'로서 과거의 인쇄신문이 누리던 위상의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NIE의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신문의 형태가 인쇄신문보다는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인 경우가 많고, 교사나 강사 역시 NIE 수업을 위해 인터넷신문과 포털 뉴스 자료를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정문성·구정화, 2005, p. 50). 또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문 매체 자체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의해 '재매개'(이재현 역, 2006)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에 의한 뉴스의 전파 역시 중요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공훈의, 2010).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가 기존의 인쇄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비해 일반인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미디어라는 점에서, 신문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신문을 제작해 보는 경험은 NIE 수업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 **신문 중심의 과목** : 『신문과 생활』은 신문에 대해 알고, 신문 읽기와 신문을 매개로 한 다양한 표현 활동을 학습하며, 신문을 삶의 다양한 요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과목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능동적이며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도구적 성격의 과목** : 신문은 오늘의 정보와 이야기를 다룬 살아있는 학습 자료로서 여러 교과와 학습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 『신문과 생활』은 이처럼 신문을 교과 학습에 활용하는 데 선행하여, 신문 활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적 성격의 지식·기능·태도를 학습하는 과목이다.
- **범교과적 성격의 과목** : 신문에서 다루는 기사는 내용면에서 여러 교과와 학습 내용과 연계되는 만큼, 『신문과 생활』은 특정한 한 교과에 치우치지 않고 범교과적 성격을 띤다. 학생들은 『신문과 생활』을 통해 타 교과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선행 학습할 수도 있으며, 타 교과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을 적용·심화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표현 중심의 과목** : 『신문과 생활』은 학생들이 신문을 단지 학습의 자료로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수용(이해)의 범주에만 국한하지 않고, 복합매체, 1인 매체, 디지털 매체 등으로 정의되는 최근의 매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신문을 매개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능동적·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학습 경험도 함께 제공한다.
- **체험 중심·프로젝트 중심의 과목** : 『신문과 생활』은 이론 학습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신문 매체를 경험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직접 신문을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 중심의 과목이다.

또한 이러한 과목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과정상에 이 과목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도출하고자 한다.

- 신문의 특성과 역사를 이해한다.
- 신문과 친숙해지며 일상생활과 학습에 신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한다.
- 신문 텍스트를 능동적·비판적으로 수용한다.
- 창의적인 내용과 다양한 형태로 신문 텍스트를 생산한다.
-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신문을 만든다.
- 민주 시민으로서 신문 매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Ⅲ. 내용 요소의 선정 및 조직

1. 내용 요소의 선정

『신문과 생활』 과목의 성격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내용 선정을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자료로부터 내용 요소를 추출하였다. 우선 기존의 NIE에서 다루어진 내용 요소들을 점검하기 위해 국내 NIE 관련 전문도서 및 교재(예를 들어 구정화, 2009; 김기태·권혁남·김양은, 2007; 이태중, 2006; 최상희, 2003; 한국신문협회, 2010)와 해외 자료(워싱턴포스트 신문사의 NIE 교육과정과 뉴욕타임즈 신문사의 NIE 교육과정)를 검토하여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NIE 교육과정에서 잘 다루지 않은 미디어 교육적 측면의 교육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 자국어 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호주와 영국의 자국어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이 과목의 학습 목표 중 하나인 '민주 시민으로서 신문 매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와 관련하여 영국의 『시민성』 과목의 교육과정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추출된 내용 요소들 중에서 이 과목에 적합한 요소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종서 등(1997)에 따르면 바람직한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가 시사하는 바로 그 행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가장 참신한 것이어야 하며, 전이가치가 높은 것이어야 하며, 탐구 정신을 계발하고 탐구 방법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학생의 능력 수준과 흥미와 필요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 선정의 원리를 염두에 두고 연구자들은 학습 수준과 학습량의 적절성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였다.

먼저, 추출한 학습 내용이 중학생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중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각종 연구 자료들을(예를 들어, 김기현 등, 2008, 2009; 이세분 등, 2002; 최인재 등, 2008) 참조하였다. 한 예로 이성진 등(2007)이 초·중·고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 항목을 국어, 수학, 영어 교과와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학생 단계와 비교할 때 고등학생 단계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논리적인 사유와 그 사유의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중학생들을 위한 『신문과 생활』 과목에서는 신문 텍스트의 논리를 파악하거나 신문 기사를 참조하여 논리적인 글을 쓰게 하는 학습 내용을 제한적인 수준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 학습자의 관심사, 태도, 가치관 등 정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 자료들도(예를 들어, 김기현·장근영, 2010; 이미영 등, 2010; 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검토하여 내용 선정에 반영하였다. 한 예로 김기현과 장근영(2010)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관심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모님과 정치·사회적인 주제에 관해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하는 질문에 초·중·고 공통적으로 약 50% 정도의 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나머지 응답지에서도 매우 유사한 응답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 두 가지를 시사해 준다. 첫째로, 응답률이 초·중·고 모두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러한 주제가 지적 발달 단계보다는 다른 요인, 가령 부모-자녀 사이의 대화 부재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그 내용의 수준에 신경을 쓴다면 중학교급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급에서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주제를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고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과 생활』 과목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 중 하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른 관심을 가진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 과목에서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어줌으로써 계획한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또 한편으로 학습량의 적절성을 가늠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신문과 생활』 과목에 배정할 수 있는 수업 시수를 고려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중학교에 배정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은 전체 306시간이며, 여기에는 '신문 활용' 외에도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문과 생활』 과목에 배정할 수 있는 시간은 한 학기(17주) 주당 2시간씩 전체 34시간 정도로 보았다. 주당 1시간씩 1년에 걸쳐 34시간을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방학 기간에 학습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목의 성격에서도 밝힌 것처럼 체험 중심·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주당 2시간씩 한 학기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2. 내용 요소의 조직

선정된 내용 요소는 타일러(1949)가 제시한 조직 원리, 즉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었다. 먼저 계속성이란 주요한 교육과정 요소를 시간을 두고 연습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신문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신문과 생활』 과목에서 길러 주고자 하는 중요한 학습 목표라고 한다면 이러한 교육과정 내용 요소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계열성이란 계속성과 연관되는 면이 있으나 같은 수준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도록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신문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라는 동일한 학습 요소라 하더라도 6학년 수준에서는 짧고 익숙하며 내적 논리가 단순한 텍스트를 제공한다면 9학년 수준에서는 훨씬 길고 덜 익숙하며 논리 전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마지막으로 통합성이란 교육과정 내용 요소들을 수평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신문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는 국어과의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연계될 수 있으며, 신문에 제시된 각종 도표나 그래프 읽기는 수학과와의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연계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문과 생활』 교육과정은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범교과적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즉, 타교과에서 선행 학습한 학습 요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를 적용·심화시키는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동시에, 『신문과 생활』에서 학습한 내용을 타교과에서도 접목할 수 있도록 내용 요소들을 설계하였다.

선정된 내용 요소들은 이러한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단계’와 ‘범주’를 두 축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두 축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하였다.

가. 단계

학습 내용 요소 간의 중복 기술을 피하고 어떤 학습 요소가 다른 학습 요소에 선행하여 다루어져야 하는지 그 순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의 과정을 <표 1>과 같이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었다.

〈표 1〉 『신문과 생활』 과목의 단계 구성

단계	하위 단계
신문 이해하기	매체로서의 신문
	신문과 광고
	포털 사이트
	넷글
	신문과 직업
신문 읽기	신문의 지면 구성과 신문 텍스트의 특성
	사실적·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하기	신문과 교과 학습
	신문을 통한 사회과 학습
주제가 있는 신문 만들기	정보 수집(취재)
	기사문 작성
	수정과 편집
	광고 제작
신문과 더불어 살기	신문과 체험 학습
	신문과 사회 참여

- 9) 이처럼 계열성의 원리는 추후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을 위한 『신문과 생활』 과목의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조직 원리로 작동할 것이다. 즉, 초등학교용이나 고등학교용 『신문과 생활』이 중학교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의 난이도, 활동의 범위와 깊이 등을 통해 계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정한 개념적 지식과 같이 어느 학교급에서만 일회적으로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단계 구성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의 단계에서는 지식의 비중을 높이 하여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뒤의 단계로 갈수록 앞 단계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상에서는 먼저 제시된 단계를 뒤에 제시된 단계에 선행하여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성 방식은 이 교육과정의 주된 독자들이 현장 교사들만큼 교육과정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들이 직접 수업 교재를 만드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의 구성 순서를 참조하여 쉽게 교과서 단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문가 협의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결과이다. 같은 취지에서 각 단계에 붙여진 이름 또한 실제로 교과서를 제작할 때 각 단원의 제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먼저 ‘신문 이해하기’는 신문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중학생들이 신문 매체를 경험하고 신문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신문 매체의 특성, 그리고 신문 매체의 과거·현재·미래와 관련된 명제적·개념적 지식이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며, 신문 매체의 특성을 다른 매체와 비교하여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문 읽기’ 단계는 신문에 담긴 내용을 사실적·추론적·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설정되었다. 또한 문자 중심의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신문 텍스트를 문자, 사진, 도표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의미를 나타내는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 Kress, 2003)로 보고, 서로 다른 기호 체계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하는지 분석해보는 활동을 내용으로 다루었다.

‘신문을 활용하여 학습하기’ 단계는 기존 NIE의 성격을 가장 많이 반영한 것으로, 신문을 활용하여 스스로 내용교과를 학습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신문 텍스트가 교과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실제로 사회 교과의 경우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학습에 신문 자료를 활용하는 연습 활동을 제공한다. 물론 여기서 사회 교과를 다룬 것은 중학교 단계에서 NIE와 가장 접목이 쉬운 내용교과가 사회과이기 때문에 가장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려고 한 것일 뿐이다.

‘주제가 있는 신문 만들기’ 단계에서는 신문이 단지 수용의 대상만이 아니라 참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실제로 신문을 매개로 한 다양한 표현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신문의 제작 단계를 고려하여 네 개의 하위 영역(정보 수집, 기사문 작성, 수정과 편집, 광고 제작)을 두었으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독자로 하여 신문을 만들고 그 신문에 적합한 광고도 제작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 교육과정을 토대로 하여 실제 교과서를 제작한다면 구체적인 주제를 부여하여 ‘가족 신문 만들기’, ‘영화 신문 만들기’와 같은 단위 제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과 더불어 살기’ 단계는 적용 중심의 단계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신문 매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며, 신문 읽기를 늘 생활화하도록 하고, 신문 매체를 통해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로 체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단계이다.

한편, 각 단계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시 하위 단계로 나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신문 읽기' 단계의 경우, 첫 번째 하위 단계에서는 신문에서 지면이 구성되는 방식과 신문 텍스트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 다음, 신문을 읽는 데 소용되는 정신(또는 사고) 기능의 일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사실적·추론적 읽기와 비판적 읽기를 각각 독립된 하위 단계로 제시하였다. 또 '주제가 있는 신문 만들기' 단계의 경우 신문이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정보 수집(취재), 기사문 작성, 수정과 편집, 광고 제작의 순으로 하위 단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세 단계에 비해 첫 단계인 '신문 이해하기'와 마지막 단계인 '신문과 더불어 살기'의 경우 하위 단계 간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나. 범주

선정된 내용 요소들을 단계 구분만으로 조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령 '인터넷 신문과 포털 뉴스의 댓글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댓글로 인해 생겨나는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들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그리고 '잘못된 댓글 문화의 폐해에 대해 알고 바람직한 댓글 문화를 조성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모두 '신문 이해하기' 단계의 '댓글'이라는 하위 단계에 속하는 내용 요소이지만 각기 그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학자들은 이처럼 서로 성격이 다른 교육과정 내용 요소들을 크게 인지적 영역(cognitive domain), 정의적 영역(affective domain), 조작적 영역(또는 운동기능 영역, psychomotor domain)으로 분류해 왔다. 이러한 분류 체계에 기초를 마련한 것은 블룸(Bloom, 1956)의 『교육목표 분류학(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으로, 『신문과 생활』과목 교육과정의 경우 그 성격상 세 영역 중에서 주로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육과정 내에서 인지 영역은 다시 지식 범주와 기능 범주로, 정의적 영역은 가치 및 태도 범주로 세분화되었다.

먼저 지식 범주는 『신문과 생활』 과목과 관련하여 중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할 명제적 지식, 개념적 지식을 가리킨다. 지식 범주의 학습 내용은 그 자체로서도 학습 가치가 있어야 하며, 신문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할 때 이론적 토대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문과 생활』 교육과정 다섯 영역 중, 앞부분에서는 지식 범주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시되며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 내용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기능 범주에서는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 신문과 관련하여 중학생들의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지 활동(사고 활동)을 다루었다. 기능 범주의 주된 활동은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 작용이므로, 이 사고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관찰 가능한 과제(발표, 토론, 쓰기 등)나 결과물의 형태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인지 활동을 통해 수행된 과제나 결과물은 평가의 주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태도 범주에서는 「신문과 생활」 과목을 통해 학생들에게 길러주려고 하는 정의적 특성으로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바람직하고 중핵적인 가치관과 신문 매체 및 신문 매체를 매개로 한 학습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등을 다루었다.¹⁰⁾

IV. 요약 및 제언

이 논문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NIE를 창의적 체험 활동 및 선택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보다 바람직한 NIE 실행을 위해 체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또한 신문 활용 교육과 신문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 교육을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보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신문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신문에 실리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문 매체에 대한 이해 중심의 교육과, 신문을 살아있는 지식과 정보를 다룬 학습 자료로서 여러 교과 학습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도구적이고 범교과적인 교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NIE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 개발 원리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NIE 교육과정을 「신문과 생활」이라는 과목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는데, 이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 활동'의 '창의적 특색 활동' 또는 '신문 활용'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에 따라서는 새로운 선택 과목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중학교 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시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목적으로 하는 창의·인성 교육의 목표를 신문을 중심으로 한 매체 교육 및 NIE 교육의 목표와 결합하여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자들은 NIE 및 신문 매체 교육에 관한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사회적 요구 반영, 중학생 학습자의 지적 발달 수준과 정의적 특성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하여 내용 요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내용 요소는 '단계'와 '범주'를 두 축으로 하여 조직되었는데, 우선 '단계'의 경우 신문 매체에 친숙해지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신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활용하며 신문을 직접 생산해 보는 경험을 하고 더 나아가 앞의 모든 학습 내용들을 삶에 구체적으

10) 각 단계 및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 요소는 정현선·옥현진(2010)을 참조.

로 적용하도록 계열화하였다. 한편 '범주'는 교육과정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범주 구분에 따라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로 삼분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요소를 서술하는 방식은 이 연구의 성격이 본격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라는 점에서 교육과정 해설서 수준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다소 추상화된 수준에서 기술하되, 일부 내용 요소에 대해서는 세부 항목을 달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한 『신문과 생활』과목의 교육과정이 비록 기초 연구 성격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앞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관통하는 체계적인 NIE 교육과정 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를 발판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개발된 『신문과 생활』과목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교육 기간의 중간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만큼, 이를 토대로 하여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각 학교급에서 매체 교육 및 NIE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학자 및 교사, 전문 강사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교육학자도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저학년, 고학년) 및 고등학생의 매체 이용 특성과 관심, 요구 등을 고려하고, 이 연구에서 고려한 바와 같이 실제 학교교육에 적용 가능한 수업 시수와 학습량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충분한 연구 기간을 확보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용 결과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교과 수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범교과적 교육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신문과 생활』과목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감 인정 도서가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 개발 과정은 시·도 교육청과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며, 교과서 개발진은 범교과적 주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어과와 사회과 등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학자와 교사, 그리고 매체 교육 및 NIE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학자 및 교사, 전문 강사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또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신문 자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원활한 저작권 협의를 위해 신문사(인터넷신문사 포함)와의 연계 작업도 교과서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과정과 이후 개발될 교과서의 활용을 위한 교사 및 전문 강사 양성과 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학교교육에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를 지도할 교사와 전문 강사의 양성과 연수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교사들의 복수 전공이 장려될 것이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도할 전문 강사의 양성과 연수도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에서는 『신문과 생활』 과목을 담당할 교사와 전문 강사의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관련 학과 및 언론학과,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가를 강화하여 자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문과 생활』 과목을 가르칠 교사 및 전문강사의 양성과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론적인 이해 뿐 아니라, 교육과정에 따른 교안 개발 실습,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실습,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설명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워크숍 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체 학령기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그리고 이를 지도할 교사 및 전문강사의 양성과 연수를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사, 시·도 교육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관련 학과 및 언론학과의 관련 학자와 교사, 전문 강사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과 학습자의 학습 과정 및 결과,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지원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공훈의(2010). **소셜 미디어 시대 보고 듣고 뉴스하라: 스마트 리더가 만드는 미디어 혁명**. 서울: 한스미디어.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 구정화(2009). **자녀와 함께 하는 NIE: 학부모 NIE 워크북**. 서울: 한국신문협회.
- 김기태 · 권혁남 · 김양은(2007). **NIE 프로그램의 내용 분석 및 효과 검증**. 서울: 한국신문발전위원회.
- 김기현 · 김지연 · 장근영 · 소경희 · 김진화 · 강영배(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흠(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 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9-R1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 장근영(2010). **2009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종서 · 이영덕 · 황정규 · 이홍우(1997).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김훈순(1994). **신문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설규주 · 이두희 · 김명정(2010). **학교 NIE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시 보고서 2010-02.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미영 · 김담희 · 김성태(2010). 청소년 미디어 레퍼토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82~106.
- 이성진, 윤경희, 임진영, 임은미, 여태철, 황매향, 김인규(2007). 초 · 중 · 고등학생의 지적 발달 과정 탐색. **아동교육**, 16, 21~32.
- 이재분 · 현주 · 류덕엽 · 조성인(2002). **초 · 중학생의 지적 · 정의적 발달수준 분석연구(III)**. 연구보고 RR 2002-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재현 역(2006).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Bolter, D. & Grusin, R.(1999). *Remediation: Understanding New Media*. MA: MIT Press.
- 이태중(2006). **NIE 원론1, 2**. 서울: 통키.
- 정문성 · 구정화(2005). **학생 NIE 알아보기**. 서울: 한국신문협회.
- 정문성 · 구정화 · 박미영(2004). **학교 NIE 알아보기**. 서울: 한국신문협회.
- 정보통신부, 한국 인터넷 진흥원(2008). **2007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 정현선 · 옥현진(2010). **NIE 교육과정 체계화를 위한 「신문과 생활」(가제)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시 보고서 2010-03.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최상희(2003). **NIE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인재 · 임지연 · 김형주(2008). **한국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I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08-R0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신문협회(2005). **NIE 가이드북**. 서울: 한국신문협회.
- 한국신문협회(2010). **신문활용 교육의 이해와 실천: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교사용 NIE 가이드**. 서울: 한국신문협회.
- 허병두(1997). **신문활용교육이란 무엇인가: NIE의 이해와 실제**. 서울: 중앙 M&B.
- Bloom, B. S.(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D. McKay Co., Inc.
- Kress, G.(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London: Routledge.
- Lewy, A. (ed.) (1991).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urriculum*. NY: Pergamon Press Inc.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논문접수 : 2011-05-01/ 수정본 접수 : 2011-06-08 / 게재승인 : 2011-06-21

ABSTRACT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 Tentative Curriculum for Systematic NIE Implementation

Hyeon-Seon Jeong

(Associate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yeon-Jin Ok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tentative curriculum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NIE at middle school level under the circumstance that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allows NIE as a part of Creative Experience or an Optional Subject. The curriculum tried to propose an idea to combine 'Newspaper Literacy' and 'Newspaper for the Study of Content Area' in a systematic way. Thoroughly reviewed were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papers, academic books, and curriculum documents related to NIE in order to organize the curriculum supposed to be for one full semester(2 hours per week, 17 weeks). The curriculum consisted of 5 steps (Understanding Newspaper, Reading Newspaper, Newspaper in the Subject Area, Making a Thematic Newspaper, and Living with Newspaper) and three domains (Knowledge, Skills, and Values and Attitudes).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based on this tentative curriculum were described at the end of this study.

Key Words : NIE, Newspaper, Media,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9, Creative Experience

